

통권22호

# 후원회소식

발행일/1993. 8. 12.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주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 전화(02) 763-2606, 745-5604



“아가야! 네가 이땀을 밟고 아장아장 걸을 때쯤이면 저 아저씨들이 모두 석방되었으면 좋겠구나~”  
- 8.3 명동성당 농성장에서



##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연대농성’과 단식중인 장기수 면회소식

### 편집부

8. 3~6일까지 대전교도소를 비롯한 34개 전국교도소 양심수들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장기수, 양심수 전원석방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민가협과 범민족대회 추진본부는 이같은 양심수들의 주장에 발맞춰 8. 3~4까지 서울 명동성당에서 연대 농성에 들어가 기자회견과 농성발대식을 갖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장기수,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대회, 거리선전, 문화공연, 각 참가단체의 장기자랑, 장기수 선생님들에게 편지쓰기, 장기수 한마당 등 다양한 순서를 가졌습니다. 양심수 후원회원 40여명도 장기수 한마당에 출연, 노래를 선보여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주요 교도소에서 연대농성과 장기수 선생님 면회내용입니다.

#### # 대전교도소

8월 5일 : 서울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정리하고 50여명이 대전교도소에 도착.

범추본 대전·충남지역 추진위 성원들과 한총련 학생 등 모두 200여명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장기수, 양심수 석방 결의 모임을 가지면서 교도소장에게 단식 중인 양심수들에게 단식 중단을 권고하기 위한 면회를 요청했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하여 농성자들은 규탄집회와 소리내기, 노래공연, 구호로 밤샘농성을 계속했음.

8월 6일 : 6시 30분, 교도소 측이 화장실에도 드

나들 수 없게 철제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있어 농성자들이 이를 철거하고 민가협 회원들이 장기수 면회를 요구하면서 정문쪽으로 다가가자, 경비교도대들이 갑자기 몰려나와 방패와 군화발로 무차별 구타, 손민아(31세, 손병선씨의 삼녀, 방패로 머리가 15센티미터 정도 찢혔음)씨와 송갑석 어머니, 백태웅 어머님이 실신, 대전 성심병원에 실려가는 폭행사건이 일어났음.

5시간 동안 농성자들의 계속된 규탄, 항의집회와 사과 요구끝에 민가협 대표, 보안과장, 소장과의 면담과 아래일들을 확약 받았음.

#### \* 폭행사건에 대하여

1. 교도소장, 대표단에 공식사과.
2. 폭행 교도관 처벌.
3. 피해자 치료와 보상 (정신적 피해와 후유증까지)

#### \* 양심수 면회에 대하여

1. 5일날 선정된 농성 대표단의 장기수 (김선명, 최하종, 송갑석)면회.
2. 그외 장기수의 가족 및 민가협 회원 면회.
3. 시국양심수 강기훈, 박길남의 민가협 회원 3명씩 면회.; 면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있음.

#### # 대구교도소

대구교도소에서는 박종린(60세, 34년 복역) 선생님을 비롯한 17명의 양심수가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소내 처우개선등을 요구하며 8월 3일부터 단식

에 들어가자, 범추본 대구 경북지역 200여명의 학생, 시민이 장기수 접견을 요구하는 농성을 전개했음. 8월 6일에는 강용주(32세, 9년 복역, 구미유학생사건), 한철수(25세, 91년 전대협 조통위원장)씨를 면회하고 7일에는 박종린 선생님을 면회하였는데, 박선생님은 34년만에 처음으로 사회인과 면회를 하셨음.

### # 광주교도소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양희철(60세, 31년 복역) 선생님을 비롯한 양심수 17명은 8월 3일부터 단식에 들어갔으며 4일, 5일에는 광주지역 민가협회원과 범추본은 교도소앞에서 지지집회를 벌였음. 특히 이상형(62세, 9년 복역) 선생님을 비롯한 5명의 장기수들은 “조작간첩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8월 9일까지 단식을 계속했음. 이들 장기수들은 “분단조국에서 역대 독재정권의 유지도구로 만들어진 조작간첩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시킬 것”을 주장했음. 장기수들은 9일 광주민가협 회원들과 접견을 하고 단식을 마무리 하셨음.

#### ■ 대표단 면담내용

\* 송갑석 (27세, 제4기 전대협 의장)

장기수들과 같은 옥사에 있으면서 크고 작은 도움을 다하고 있는 송갑석 의장은 4일째 단식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모습.

한여름에 나이 많으신 장기수들의 단식은 생명을 건 투쟁이라며, 김선명 선생님도 단식으로 더욱 건강이 나빠져 면담에 나오지 못하였다고 설명.

밖에서 열심히 투쟁해 주는데 감사하며 여러분께 뜨거운 인사 전해달라고 함.

\* 최하종 (67세, 32년 복역)

건장한 체격에 비교적 건강하심. 외세를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사명으로 남쪽에 왔을 뿐인데 30년이 넘도록 청춘시절에 익힌 지식, 기능을 조국과 민족에 기여하지 못하고 같은 동포에게 구속

되어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양로원으로 보내지는 참혹한 현실을 개탄하심.

운동과 서예로 열심히 몸과 마음을 닦으며 민족장래를 낙관적으로 보시면서도 이 수치스런 악법과 제도에 묶여있는 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이라기보다 민족의 아픔이고 수치라고 말씀하심.

여러가지로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심.

\* 안학섭 (64세, 41년 복역)

위장질환으로 원래 건강이 좋지 않으신 상태에서 단식을 해서인지 더욱 쇠약해 보이고 기력이 없어 보임.

41년 복역 중 처음으로 외부인을 만났다고 하심. 오직 통일염원 뿐인데 동족에 묶여 40년이 넘는 철창 생활을 하는 것을 민족적 수치라고 개탄하심.

강도일제의 탄압을 유달리 받는 집안이었기에 미군상륙을 해방군으로 환영한 일, 일제잔재가 그 ‘해방군’ 도움으로 정권을 쥐게되어 분단과 전쟁을 겪은 아픔과 전장에서 동족에게 총을 겨눌 수 없어 불집히게 된 이야기를 하심.

형님·조카 고향에 있으나 면회 못 음. 60년대 면회온 형님이 교도소로부터 갖은 모욕을 당하고 면회도 못하고 집에 와 3일간 문걸어 잠그고 식음을 폐하고 있는 모습을 어린 조카가 편지를 보낸 것을 보고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함. 민족의 갈라짐이 곧 가족의 갈라짐이라고 말씀하심.

일반 형사범은 살인하고도 14-5년 넘지 않고 나가는데, 조국통일 염원 그것 하나 때문에 41년 옥살이를 하고 계심. 58년경 구타로 늑막유착, 전향공작으로 물먹여서 위장상해.

이제 아무 쓸모 없게 되면 양로원으로 보내지는 관행의 비인간적 현실에 개탄 하심.

참으로 헤어지기 아쉬운 무거운 발걸음으로 뒤틀 아보시는 모습, 이것이 ‘문민시대’에도 존재하다니...

## 누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의 것

이승아(25세, 학원강사)

“**말** 이 18년이지, 짐승들도 깨끗한 우리에  
지내게 하려고 애쓰는데, 사람이 그런  
곳에서 18년을 살다니… 백두산이 높다지만 18  
년간 이 가슴에 쌓인 한에 비하겠소?”

소식지에 실릴 기사란 말에 행여 고생하는 동  
생의 신상에 도움이 될세라, 부랴부랴 달려왔다  
는 유정식 선생님의 누님. 동생이란 말에 눈물  
부터 글썽이셨던 그 누님의 첫 마디였다.

유정식 선생님은 일제시대 노동자로 도일한  
아버지를 따라 일본에 갔다가 해방과 더불어, 9  
세때 처음 고국 땅을 밟으셨다. 경남 김해에서,  
소작농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2남 1녀 중 막내로  
자랐던 선생님은, 일찍 어머니를 여읜 탓에 10  
살 터울의 누님과는 어릴 때부터 각별한 사이였  
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책을 무척 좋아했고 한번 마음  
먹은 일은 꼭 해내는 성격이었지. 그래, 집안의  
기대도 컸지만 워낙 여유가 없는 형편이라 대학  
다닐 때까지 산 책은 한 상자도 못 채웠다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남의 집 가정 교사 생  
활을 하며 학업을 계속했던 선생님은 64년, 4년

간의 장학금을 약속받고 건국대학교 축산학과에  
입학했다.

그러다가 67년 12월, 대학 3년 재학중에 학  
교의 배려로 축산 기술 연구차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 뒤 동경대학교 대학원 농업 생물학  
과에 연구생으로 들어가 연구 생활을 해 오다가  
70년 귀국하였다. 귀국 후 번역 일 등을 하며  
지내다가 75년 간첩활동 혐의로 갑자기 체포되  
었다. 일본 생활 중에, 북한의 축산 기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한 두 번의 입북 사실이 빌미가  
되었던 것이다.

“지금도 무지랭이지만, 그 땐 정말 아무것도  
몰랐지요. 맨날 입버릇처럼 출세해서 호강시켜  
주겠다던 동생이 간첩이라니 사방이 아득해집디  
다. 간첩 집안이라는,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가  
슴 아팠지만 정작 동생이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는 눈물도 안 나옵니다.”

결국 유선생님은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이렇다 할 증거물  
도 없고 경찰에서 주장하는 귀국 후의 간첩 활  
동도 확인되지 않아서 설마설마 했는데, 막상

사형 선고를 받고 보니 기가 막혀 눈물도 안 나왔다는 것이다. 울지도 못하고 하얗게 질려 주저앉고 말았는데 옆에서 보기에도 안쓰러웠는지 누군가 와서 2심도 있는데, 사형은 면할 것이라 귀뜸해 주더란다.

“내 불쌍한 동생이 살 수만 있다면 내 살이라도 떼어 팔겠다는 심정이었소. 그러나 마음만 급했지 내가 뭘 알아야지. 여기 가서 절하고 저기 가서 사정하고,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는 곳이면 찾아가서 무작정 빌기만 했지.”

고향이 이복이었던 남편은 처남이 간첩죄로 체포되자 펄쩍 뛰며 누님의 뒷바라지를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차라리 당신과 이혼을 했으면 했지, 내 동생은 버리지 못하겠노라고 잘라 말하고는 어린 두 아들도 남의 손에 맡긴 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어 물어 다니셨다. 결국 유선생님은 2심에서 무기 선고를 받았으나, 수사 도중 당한 모진 고문의 휴우증으로 인해 10여 년간을 정신 질환을 겪으면서 수형 생활을 보내게 되었다.

“사실, 형편이 어렵다보니 마음처럼 자주 찾지는 못했지요. 그나마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도, 정신도 온전치 못해 주위 교도관들에게 이놈, 저놈 외쳐대며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내 속이 다 뒤집어집니다. 그 꼴 보기 싫어 이젠 정말 오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돌아서면 또 걱정이 되어 안달이 나는 걸.”

누님은 글을 전혀 모르신다. 글을 모르니 면회가서도 어디 어디서 뭘 해오란 소리를 듣고는 곧 잊어 버리곤 하셨다. 그래서 자신보다 훨씬 후에 온 사람들이 면회를 다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여전히 신청서만 들고 뱅뱅 돌 때도 있었다. 한번은 그런 누님을 보다 못한 교도관이 과

천에 있는 어느 기관을 찾아가 보라고 귀뜸을 해 주었다.

그 얘기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반가와 다음날로 당장 그 주소를 들고 물어 물어 가다가 그만 주소가 적힌 쪽지를 잃어버리고는 길에 주저앉아 울어버린 적도 있었다.

“그땐 글 한 자 모르는 내 자신이 얼마나 한 스럽고 원망스럽던지. 나라도 힘있고 똑똑하면 벌써 내 동생을 빼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오. 이 무지랭이 누나때문에 동생이 그 고생을 계속하는 것 같아서, 설사 동생이 나온다 해도 미안하단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우.”

힘없고 빠없는 설움은 여러 한스러운 사연과 함께 18년 간의 세월을 엮어 왔던 것이다. 한번은, 일본의 동생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의 일본 단체들이 탄원 서명 운동을 벌인 일이 있었다. 그에 때 맞춰 동생의 은사이신 동경대학의 어느 교수 내외분이 방한을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는 어찌나 반갑고 좋았던지, 방한 전날엔 뜬 눈으로 밤을 밝히셨다.

그 다음 달로 천 여 명이 서명한 서류를 들고 그 내외분과 함께 법무부를 찾아갔더니 뜻밖에도 대접이 너무 좋았다. 사람들이 모두 깍듯이 예를 갖추고 안내를 하는데 나중엔 이상한 생각마저 들었다. 알고 보니, 일본에서 왔다는 말에 그 날 오기로 예정된 일본 관리로 착각해서 빚어진 일이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법무부 장관과 면담은 했지만 무성의한 답변과 사람들의 돌변한 태도가 서러워 눈물만 뿌리며 되돌아 왔다.

“나는 뭣도 모르는 할멈이지만 그래선 안 된다는 건 알지. 자기 나라 백성 가슴 아픈 것을 등 돌리고, 외국에서 누가 온다니까 그렇게 굽

신거릴 수 있는가? 그런 짓거리가 이제까지 나라 망쳤다는 것은 내 안다니까.”

그러던 누님이 민가협을 알게 되어 인연을 맺은 것은 3년 전이라고 한다. 처음에 간첩 집안이라는 손가락질에 항변 한 번 못하고, 그저 우리 동생 불쌍히 여겨 그 흥한 곳에서 나오게 해주십사 빌고만 다녔지만, 지금은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는 “국보법 철폐하라. 양심수를 석방하라.” 열심히 따라 외치시며 번쩍번쩍 손도 잘 드신다. 동생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니, 민가협 일이라고 하면 열일 제쳐 놓게 되었다고 한다. 도움을 청할 사람도, 하소연 해볼 곳도 없던 누님에게도 이제 든든한 뼈이 생긴 것이다.

그렇게 눈물과 한숨과 지성으로 보낸 18년이었다. 그 동안 대통령도 세 번이나 바뀌었고 그렇게 기다리던 문민정부 시대가 되었지만, 누님 눈가의 그늘은 여전하기만 하다. 유선생님이 다시 정신은 온전해졌지만, 고문의 휴우증이 가시지 않아 눈이 몹시 어두워지는 등 몸이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엔 힘들어도 내색도 않던 무던한 동생이었지만 요즘엔 그 얼굴에도 조금 해하는 기색이 역력해졌다고 한다.

뭔가는 달라져도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던 문민정부 시대가 되었지만, 감형은 커녕 도리어 커지기만 하는 압박감에 크게 낙담하셨다고 한다.

“우리 정식이는 죄가 없다우. 당시 기록에도 별다른 혐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18년 세월이 말이 됩니까? 그때 주범으로 체포되었던 사람도 감형을 받고 몇년 후 석방됐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간 두세 번씩은 감형이 있

었는데 우리 정식이만 그런 혜택이 한 번도 없으니, 이것도 다 힘없고 빼없는 설움 아니우?”

그 당시 주범으로 함께 체포되었던 재일 동포 김달남은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안기부의 공작에 협조하여, 77년 3월 무기로 감형되었다가 그해 12월 특사로 석방되었다. 유선생님은 감형은 고사하고, 85년 옥중에서 읽은 일본 잡지 〈문예춘추〉에 기재된 북한 기사에 대해, 다른 수형자에게 이야기한 것이 빌미가 되어 추가형으로 3년을 더 언도 받은 상태이다.

“이젠 나밖에 없어요.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후 오빠도 죽고 올케도 죽고 아버지마저 94세의 나이로 3년 전 별세하셨지요. 아버지는 늘상 정식이가 곧 온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제 나 저제나 기다리시다가, 결국 돌아가실 땐 두 눈도 못 감으셨다우. 그래, 나는 정식이가 나올 때까진 죽고 싶어도 못 죽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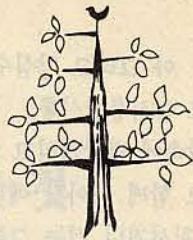
유선생님에게는 두 가지의 소원이 있단다. 하나는 사회에 나가 뭔가 이뤄 놓고 죽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식이 끊긴 딸 수감 후 이혼한 부인이 키우고 있다 을 만나 보는 것이다.

같은 동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곳의 축산 기술은 어떠한지 보고 싶다는 단순한 소망의 대가로는 너무나 혹독한 세월을 보내왔지만, 여전히 그 평범한 소원이 이뤄지기는 요원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지병인 심장병과 혈압으로 고생하시면서도, 10시간의 먼 여행길이 고생스러워도 면회하는 날만 기다리신다는 누님. 그 고운 얼굴을 온통 한으로 얼룩지게 한, 누님의 십자가는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것이리라.

※ 유정식씨는 현재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주소; 경북 안동군 풍산읍 상리3동 121. 안동교도소 1311번)

## 긴 장마, 하루 맑음



오 수 강(27세, 편집사원)

1. 갑작스레 몇몇 사람들이 연행되어갔다고 했다. 몸조심들 하라고 모두들 수근거렸다. 분위기타고 또다시 옛버릇 나온다고 분개하는 사람도 있었고, 도대체 그놈들 무슨 꿍꿍인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봤자 껴떡할 것 같으나 고 코웃음치는 사람도 있었다.

뒤승승한 분위기, 때때로 암담한 분위기가 숨죽이며 며칠을 갔다. 뒤늦게 신문에 민가협 전 공동의장 권낙기 선생님과 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간사 노태훈씨를 비롯한 8명이 자택과 사무실에서 각각 연행되어갔다는 기사가 실려나왔다. 그리고 곧 노태훈씨는 구속되었다고 했다.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일, 늘 흔하게 영문모르게 당해오던 일이지만 그러나 힘없는 자, 탄압받는 자 쪽에서는 그때그때마다 세상이 혼들리는 불안과 뼈가 저리는 가슴아픔, 그것뿐이다.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었다.

2. 벗줄기가 조금은 잔잔해지는가 싶더니 산행 며칠 전부터 거친 머리채를 풀어헤치고 덤벼들었다. 일기예보에 화사한 색상의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점잖게 차리고 나온 어떤 아저씨가 '내일은 반드시 비가 온다!'라고 말했다. 이러다가 이번 산행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꼭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닐까. 밤새 창밖엔 비오는 소리가 울렸고, 몇번씩 선잠에서 깨 때마다 올려다 본 창가엔 가로등 불빛조차 빗물에 젖어 부서지고 있었다.

긴밤이 지나고 아침.

거짓말같이 개어있는 하늘. 희-야!

배낭에 미리 챙겨넣었던 비옷을 꺼내면서 콧노래를 불렀다.

### 3. 7月 산행

일시: 93년 7월 18일(일) 이른 10시

장소: 불암산

준비물: 회비 3천원과 각자 도시락

만나는 곳: 지하철 4호선 종점 '당고개' 역 매표소 앞

찌끔 늦었다. (언제나처럼?!)

눈썹을 휘날리며 정신없이 뛰어서 약속장소에 도착하니, 반가운 얼굴들이 한껏 웃음을 물고 반겼다.

늘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장기수 선생님들, 진달래를 닮아서 그런지 늘 밝고 정감이 느껴지는 깜찍한(?) '진달래청년', 사실은 엄청난 늄다리(?)들이지만 신세대 역할까지 해내느라 진땀을 흘리곤 하는 '열린사회', 행사때마다 빠짐없이 참석하는 변함없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시립'

대', 아 그리고 양심수후원회를 주름잡고 있는(?)  
감초 음시통감시통.

햇살속에 방글거리고 있는 이 얼굴들이 바로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예쁜 동지들인 것이다. 앞서거  
니 뒷서거니 걷는 그들의 어깨가 문득 너무나 자  
랑스러워보였다.

4. 조금씩 오르다가 아득한 장소를 찾아 식사를  
했다. 전과 같은 흥겨운 분위기와는 달리 모두가  
조금은 숙연한 가운데 간혹 술잔도 오고갔다.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럴 때일수록 자연을 보면서 지혜를 익혀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이 흐르다 멈추면 어떻게 하던가  
요. 물이 바위를 만나면 조용히 멈추어섭니다. 그  
리곤 낮은 곳으로 흘러 고이고 모이고, 다시 길을  
내어 흘러갑니다."

문득 눈을 들어 바라본 하늘이 푸르렀고, 그순간  
코끝이 저려온 느낌을 느꼈다.

기다림.

지루한 기다림.

때때로 나는 이 모든 것에 얼마나 쉽게 좌절하는지.

5. 500m가 조금 넘는 정상이 먼 하늘자리에 버티  
고 있었다.

장기수 선생님들을 모시고 하는 산행인지라 무리  
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했다. 그러나 오늘  
은 예외적으로 정상도전을 감행한다고 했다.

여름 열기를 마시고 자란 숲풀은 얼굴과 팔을 할  
퀴며 길을 가렸고, 오를 때마다 매번 만나는 커다  
란 바위와 미끄러운 왕모래는 아찔한 벼랑으로 밀  
쳐내려는 간교 같았다.

그럼에도, 우리 청년들보다 더 튼실한 자세로, 때  
때로 괴성을 지르며 주저앉는 여회원들을 부축해  
주시며 앞서오르시는 장기수선생님들의 뒷모습이  
햇빛에 반사되어 마음속으로 선명하게 투영되어

들어왔다.  
힘이 났다.

6. 정상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다.

물빛보다 더 맑고 투명한 푸른 하늘을 이고 북한  
산 줄기가 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호탕하게 웃고  
있었다. 힘차게 생기있는 햇살이 여름의 한가운데  
서 익을대로 익어버린 굽직굵직한 가지가지 사이  
로 녹푸르게 쏟아져 내렸다.

뺨을 스치는 바람이 더없이 경쾌했다.

모두들 침묵속에 많은 상념을 움켜넣으며 우리가  
헤치고 올라온 무성한 숲의 바다 저편, 너무나 작  
아져 다닥다닥 장난감 공장 같아져버린 알록달록  
한 집들이며 부지런히 흘러가는 자동차들을 내려  
다보았다.

누군가가 말한다.

사람들 속에서 산을 올려다볼 땐 산이 좋더니, 산  
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니 사람들도 보기 좋구나.

7. 하산, 뒷풀이는 여유로웠다.

무언가 그득히 안고 온 것이 있어 그간의 무기력감  
에서 벗어나 조금은 가득찬 듯한 느낌이 있었다.  
홍얼홍얼 콧노래들도 나왔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간 양심수후원회 산행에서는 예외적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오늘 이렇게  
정상에 올랐던 발걸음을 잊지 맙시다. 자신감을  
갖고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오는 길엔 발걸음이 가벼웠고, 뒷풀이에서 힘  
주어 말씀하시던 회장님의 말씀이 귓전을 울렸다.  
내일도 비가 온다고 했지, 아마? 그래도 그것도  
한 땐걸 뭐.

기슴속엔 정상에서 만났던 푸른 하늘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주아주 큰산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았다.

## 10번의 농촌활동이 나에게 가져다준 것

박 천 조 (23세, 단국대 법학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땀방울은 '소금기' 이상의 커다란 의미를 가져다 준다. 작게는 땀을 흘리며 자신 스스로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대견함과, 크게는 농부님들과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느끼며 무언가 고쳐야겠다는 각오일 것이다.

1학년 여름방학때 대학생으로서 기억에 남을 한 가지 가치있는 것을 해봐야겠다는 다소 막연한 생각으로 농촌을 찾아갔었다.

사회변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분들과의 만남이라는 생각이 나를 흥분시키긴 했지만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좋은 공기나 마셔보자는 생각이 짙었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가졌던 농촌에 대한 여러 생각들 특히, 맑은 공기, 파릇파릇한 나뭇잎, 무수한 파실수와 같은 다소 아름다와 보이는 것들에 대해 환상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0일간 생활하며 느꼈던 것은 농촌의 아름다운 풍경속에 녹아있는 농부님네들의 피땀과 1년에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사람이 수십명이라는 데서 오는 사회현실의 비참함이었다.

육체적 고통과 함께 나에게 부과되었던 농촌의 현실에 대한 문제점은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속에서 논밭의 이름다움보다는 '저논엔 피가 많이 있지 않을까?' '저 논은 두렁을 깍아야겠는데'라는 조그마한 시각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후 해가 계속되면서 농활은 학내 여러 사업속에서 자칫 관성화되었던 나를 다시 한번 추스리고 노동

의 커다란 의미속에서 '참삶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케해주는 활력소가 되었다.

어느 곳에서는 매주 금요일이면 모든 관리들이 책상위에서 일하며 자칫 갖기쉬운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농장에서 같이 땀을 흘리며 자기 머리속의 관성의 녹을 제거하는 '금요노동'이라는 것을 한다고 한다.

아마 나에게도 이런 의미로 변화된 것 같다.

이전까지 천하게만 느껴져왔던 노동-땀방울의 개념.

마치 노동하는 사람이란 말을 들으면 세상에서 베림받고 주려사는 사람처럼 느꼈고 느끼게 했던 술한 시절들.

'닫힌 교문을 열며'라는 영화속에서 선생님이 하였듯이 L(엘)자로 시작되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사랑, 삶 이외에 노동이라는 단어는 전혀 생각해낼 줄 몰랐던 수많은 나날들.

그러나 난 4년간 10번의 농활을 되돌아보며 노동이라는 것, 땀방울을 흘린다는 것 이것은 가치를 창조하는 것, 역사를 발전시키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땀을 흘리는 사람만이 이땅의 주인이란 것도 그래서 난 이땅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소박하지만 묵묵히 사회의 변화, 발전을 일구어내는 그분들처럼.

이제 사회진출후에 내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자못 어떨지 기대해 본다.

이것도 한번의 땀방울이 나에게 준 '소금기' 이상의 큰 의미가 아닐런지.

후원회원 여러분!

어느새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곁에는 핫살을  
느낄 겨를도 없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께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1. 윤수갑 선생님 (대전 3649) : 1923.4.7 생 (71세) 1967.9 구속. 무기형. 26년 복역  
경남 동래( 지금의 부산)에서 출생. 해방 후 죄악활동으로 수차 구속되었으나 투쟁의 일선에서  
떠나지 않았다. 60년대 중반 월북했다가 남으로 내려왔다가, 1차 인혁당사건(본인과 관계없는 것을  
조작연계)으로 67년 체포, 무기형을 받았다. 수형생활에서 항상 자신의 사상을 지키고 있으며 강제  
전향 테러시에도 악착스럽게 견디어 내고 매번의 처우개선투쟁이나 전향제도 반대 단식투쟁에 항상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자신의 정치노선과 대체되는 일에는 추호도 양보없는 투쟁정신을 보이고  
있다. 아들은 부산에 살고 있으며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면회하고 있다.

2. 양정호 선생님 (대전 3630) : 1931.4.3 생 (63세) 1969.6.18 구속. 무기형. 24년 복역  
대구출생. 부산상고를 다니다가 50년 전쟁시 국군에 징집, 전선에서 인민군으로 귀순, 인민군에  
입대하여 전투에 참가하고 군에서 노동당에 입당했으며 제대후 함북도 청진제강소 실험실 연구원으  
로 근무하면서 공장대학을 졸업했다.

직장직업동맹에서 간부로 활동하다가 60년대 교육을 받고 69년 부산에서 활동하다 체포되었으나 현  
장검증 도중 열차에서 뛰어내려 도주를 시도하다 머리에 부상을 입고 체포당하여 무기로 확정되었다.

전담반 강제전향공작때 권총으로 사살하겠다는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으며 특히 대전 신교도소  
로 이감은 후 독거운동장 건설 반대투쟁의 선봉에 서서 싸우다가 지하실에 끌려가 강제급식을 수 차  
례 당했으나 의연히 견뎌내고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다. 현재 머리와 몸의 피부병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다.

..... < 주 소 > .....

대전교도소 : (305-251)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36번지

## 그날이 올때까지.....

**장** 마철에 접어들어 날씨가 고르지 못한 계절이온데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십니까? 금년도 어언 후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월이 가는 것이 어찌나 빠른지를 새삼스레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월 6일, 5월 28일의 불만스럽던 충격도 날자가 훌러감에 따라 적지않게 희석된 것 같기도 합니다.

보내주신 영치금을 7월 2일에 감사히 받았습니다. 우리 사동을 대표하여 제가 이글을 드립니다. 제각기 고마운 말씀을 올리는 것이 도리일 것이오나 아직 복역수의 신분인 것을 고려하시어 양찰하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로 고마운 감정을 남김없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항상 염려를 내려주시는 덕분에 여기있는 우리는 모두 잘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과분하게 도와주신 아래로 생활이 윤택해지고 활기는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식탁은 날로 풍요해지고(요새는 우리 손으로 지은 채소들 - 상추, 쑥갓, 케일 등도 가세되어) 건강상태는 날을 따라 호전되어 가는 것을 실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 뒷받침의 작용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고무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적 관심은 고마우신 여러분과의 기쁨에 넘칠 상봉을 이루하고 평소에 품고있는 절절한 고마운 뜻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속히 실현되는 것에 모아지고 있사오며 그날이 올때까지 심신을 모두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진요한 과제임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적 배려에 보답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열심히 살아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충심으로부터의 감사를 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은 분에 넘어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나가신 선생님들에 대한 극진한 보살핌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옵고 앞으로도 여전한 배려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혹서가 몰아닥칠 것이온데, 부디 보중하시고 건투하시옵기를 빌면서 이만 줄입니다.

1993년 7월 3일  
대전 옥사에서 최하종 삼가드립니다.

\* 최하종 선생님은 1962년 3월에 구속되어 무기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32년째 복역 중입니다.

### 이런 일이 있었어요!

7. 1 -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 관련 배병성 군 (외대용인 대학생) 불법연행 관련 시경 항의방문이 있었습니다.
  - 회원사업 기획모임 회의가 있었습니다.  
3/4분기 (7-9월) 산행과 8월 여름 수련회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7. 2 - '21호 소식지' 편집 모임이 있었습니다.  
소식지 제작에 항상 애써주시는 홍전영, 김혜순, 이승아 회원이 함께 했습니다.
  - '김국홍, 함세환 노인 송환 추진본부' 회의가 NCC에서 있었습니다.
7. 4 - 임방규 선생님 진갑잔치가 있었습니다.
7. 5 - '민애전' 사건 황인오씨 항소심이 기각되어 원심대로 무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대전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하신 김용수 선생님께서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민가협 어머님들과 좋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 출소장기수들의 건강진단 협조를 위해 인의협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로 함에 따라 8월 1일 - 10월 31일의 기간동안 종합검진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단히 고맙습니다!
7. 6 - 구속된 배병성 학생의 부모님께서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 윤용기 선생님 가족을 찾아뵈었습니다.
7. 7 - 전주교도소 석달윤 님에게서 감사 편지가 왔습니다.
  - 민가협 어머님들께서 낙성대 '만남의 집' 을 방문하셨습니다.
7. 8 - 후원회 소식지 21호를 발송했습니다.  
손일순, 장선미, 박미옥 회원이 발송작업을 도와주셨습니다.
7. 10 - '일터를 사랑하는 청년모임' 회원들과 만나 봉천동 만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또한 '일터-'에서 하루주막 성금을 통해 모금한 성금 200,000원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11 - 민가협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 후원회 7월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7. 12 - 황석영씨 1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7. 13 - 노태훈씨 등 8명이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 7.16 - 민주가족의날 회의가 민가협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 남영동 대공분실 항의방문이 있었습니다.
  - '민애전' 사건으로 구속중인 손병선(무기)씨의 부인 성순희씨의 병세가 악화돼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 이날, 따님이신 손민영씨(구속중)가 구속집행정지로 24시간 외출을 나와 어머님을 병문안하고, 다음날 다시 수감되었습니다.
- 7.18 - 7월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불암산, 30명 참석)
- 7.19 - 황석영씨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 7.20 - '민애전' 사건 관련 손병선, 손민영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었습니다.
- 손병선씨는 기각이 되어 무기를 받았고, 손민영씨는 5년형을 받았습니다.
- '3자개입 금지조항 철폐와 구속. 수배 철회를 위한 설명회 및 기자회견'이 향린교회에서 있었습니다.
- 7.21 - 기독교회관에서 농성중이던 양심선언 군인.전경들이 청와대 방문을 위해 거리행진을 벌이다가 전원연행되어 구속되었습니다.
- 연행과정에서 가족과 학생들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 7.23 - 노태훈씨가 검찰로 송치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 성동구치소에 수감중인 장기표 선생님을 면회했습니다.
- 7.26 - 미국 수도장로교회에서 성금 500달러를(장기수 10인에 대한 영치금, 자녀돕기)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7.27 - 건국대 학생들 민가협 탐방, 민가협과 후원사업에 대해 이야기 나눔
- L.A 양심수 자녀돕기 모임서 보내주신 성금을 손병선씨 자녀와 노태훈씨 가족에게 각각 100,000원씩 전달했습니다.
  - 범추본 주최,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위한 평화와 통일의 밤'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 출소장기수 선생님들께 생계지원비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 7.28 - 이종환, 조창순 선생님께서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함께 식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7.30 -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결성대회가 있었습니다. (수운회관)
- 7.31 - 장기수 10명 (2만원씩)과 일반 양심수 30명(15,000원씩)에게 영치금을 보냈습니다.
- 미국 수도장로교회 자녀돕기 성금을 이현치씨 자녀(이성오 군)와 서경원씨 자녀에게 전달했습니다. (각 90,000원씩)

## - 인권운동가 노태훈씨의 어이없는 구속 -

7월 13일(화) 오전 6시 : 춘천, 광주를 포함한 11곳에 수사관 11명을 동원하여 10곳을 압수수색하고, 노태훈씨를 비롯한 8명을 연행.

\* 노태훈씨(서강대 83학번, 전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간사, 현 인권운동 사랑방 실무자 겸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KONUCH)실무자)연행 : 경찰청 보안국 보안4과 소속 김송원 등 4명의 수사관들이 13일 오전 6시에 인권운동 사랑방(대표 서준식) 사무실에 들어와 옷도 입지 않은 노태훈씨를 수갑을 채우면서 구속영장을 보여줌. 추후에 확인 결과 압수수색영장(서울형사지방법원 김건일 판사 발부)복사본을 구속영장이라고 속임.

\* 오전 6시 15분경에 노태훈씨 집 압수수색.

\* 김영미씨 : 압수수색영장 제시 후 6시부터 30분 이상 수색하여, 일기장만 압수해가면서 참 고인으로 연행해감.

\* 권낙기씨(전 민가협 공동대표) : 오전 6시 30분, 권낙기씨(전 민가협 공동의장)집에 경찰청 보안국 소속 경위 최병갑 등 4인에 의해 압수수색 실시.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출소장기수들이 만드는 회보) 100여권과 92년 5월 동경에서 열린 「한국 양심수들이 마련한 서화전」팜플렛과 서적 약 20여권 압수해감. 압수수색을 하는 동안 전화통화를 막음.

\* 민중당제원(제기동 소재), 6시 30분경부터 9시 30분까지 경찰청 보안국 소속 경위 신찬호 등 4명의 수사관에 의해 압수수색 실시. 압수수색을 하는 동안 전화코드를 뽑아 통화불능. 압수수색 대상자는 권낙기씨로 되어 있었고,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400권, 책자 6권, 탕제원 관계자 각자의 수첩, 임방규씨 원고 200매, 민중당제원 경리장부, 앨범 1권 등을 압수해감.

\* 오주석씨(출소장기수, 춘천 거주) : 오전 6시에 압수수색 후 박형식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겠다며 연행

\* 류낙진씨(출소장기수, 광주 거주) : 오전 6시에 수사관 4명이 경찰청에서 왔다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오전 8시경에 연행해감.

\* 김태일씨(전 장기수가족협의회 회장(91-92년), 출소장기수), 오전 6시 가택수색, 책 수첩 등을 압수하고, 오전 9시경 연행.

\* 심보선씨(인권운동 사랑방 실무자) : 오전 6시 30분경, 서울경찰청 보안국(794-3323)소속 정경하, 김귀봉, 박병섭, 이융세 등에 의해 가택 압수수색당함.

\* 민족건강회(노태훈씨 사무국 차장) :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경찰청 보안국 보안4과 소속 경위 손종기 등 4명이 압수수색 실시(차량:서울4 2405호 흰색 르망)

\* 김동원씨(푸른영상 회원, 독립영화협회 회장) : 장기수의 생활을 비디오로 제작하고 있음. 오전 10시 30분쯤 경찰청 대공수사 1단이라고 밝힌 3명이 와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면서 장기수 관련 비디오 테이프 등을 압수하고, 연행해감.

\* 7월 13일 12시 : 천정배 변호사와 노태훈씨 어머니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노태훈씨를 면담.

\* 오후 3시 권낙기씨 부인 이옥순씨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권낙기씨와 면회

- \* 4시 30분 김동원씨 석방.
  - \* 오후 9시 40분, 김영미씨 무혐의 석방.
- \* 7월 14일(수) 오후 9시경 : 심보선씨 불구속 입건으로 석방.
- \* 오후 9시 30분경, 김태일씨 석방, 경찰에서 불구속 입건 여부 밝히지 않음.
  - \* 오후 10시, 오주석씨 석방, 불구속 입건 여부 밝히지 않음.
  - \* 15일(목) 오전 5시경, 권낙기씨 불구속 입건 석방.
  - \* 오전 5시 30분경, 류낙진씨 석방. 경찰에서 불구속 입건 여부 밝히지 않음.
  - \* 오전 6시, 노태훈씨 석방.
- \* 7월 15일(목) 오후 6시 40분 : 노태훈씨 재차 연행. 서울2 다 5199호 차량 등을 탄 6명의 수사관들이 조용환 변호사 사무실로 노태훈씨에 대한 구속영장(사본) 걸장만 가지고 와서 연행을 시도하였으며, 변호사들은 협의내용이 없는 이러한 구속영장으로는 연행을 못한다고 항의하며 몸으로 막았으나, 강제로 끌고감. 14일 오전에 조용환변호사가 노태훈씨를 면회할 때 책임자라고 밝힌 4-50대의 남자가 직접 지휘하였음.
- \* 오후 10시 30분, 노태훈씨 불법체포 및 감금에 대한 남영동 대공분실 항의방문. 천정배 변호사, 민가협 회원, 민족건강회 등 15명. 노태훈
- 씨가 밤에는 용산경찰서에서 자고, 낮에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 확인 후 용산경찰서에 노태훈씨가 수감중임을 확인.
- \* 7월 16일(금) 오전 10시 30분 : 조용환, 백승현 변호사가 남영동 대공분실 수사관들을 불법체포 및 감금 등의 죄명으로 서울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함.
- \* 오전 10시 30분경에 경찰청에서 노태훈씨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함.
  - 1) 노태훈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 2) 협의내용:
    1. 주체사상과 북한통일노선을 찬양하는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 2,3호를 입수 탐독한 혐의
    2. 출소장기수, 일부 재야단체회원을 중심으로 한 천북한 운동조직을 만들었다는 혐의
  - \*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AL) DPTJ 1993년 7월 15일(한국시간 7월 16일) 긴급 행동요청 공문을 전 세계에 전송했다.
  - \* 7월 20일 일본 <세계인권회의 NGO연락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인권대회> 참가자인 타이에서의 마운 만탄씨(미안마에서 타이로 망명중)와 한국에서의 노태훈씨에 대한 체포에 항의했다.
- \* 8월 4일 : 구속적부심 기각.

현재 노태훈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편지 부탁드립니다.

(주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산18-1 서울구치소 158번)

## - 제4차 범민족대회 소식 -

조국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제4차 범민족대회가 93.8.13-15일 사이에 연세대학교에서 치루어집니다. 개막식과, 통일노래 한마당, 전야제, 노동자 한마당을 열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1) 남북합의서 실천대책 2)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책 3) 일본군국주의화에 대한 대책 4) 통일방안 합의를 위한 대책을 회의 의제로 토의하게 됩니다.

이보다 앞서 7월 30일엔 수운회관에서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결성대회를 갖고, 문익환 목사님을 대회장으로 선출하였고 8.7 - 12 사이엔 93 범민족대회 개막을 알리는 통일문화 대축전이 진행됩니다. 중요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8. 7 서울시민 걷기대회 (마로니에 공원 - 탑골공원)  
개막제 ("겨레여, 통일을 노래하자")
8. 8 자주교류의 밤 - 문익환, 유원호, 문규현, 임수경, 임종석 등 방북관련 인사 출연, 체험담
8. 9 통일 대토론회 (한반도 자주적 평화정착과 통일방안)
8. 10 통일가곡의 밤
8. 11 통일 아리랑  
일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반대 및 전쟁범죄 진상진상규명 국제연대 집회  
(일본대사관 앞)
8. 12 국가보안법 철폐와 장기수, 양심수 석방을 위한 민중연대 한마당

이외에도 대회기간 상설행사로 남북 우수영화 시사회, 연극 '완전한 만남' 공연, 민족의학 무료 진료, 통일사진 및 미술전시, 통일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 ..... -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1. 김계화 (향린교회 청년신도회)
2. 김현희 (도봉구 창1동)
3. 원순식 (용산구 효창동)
4. 새세대 (중랑구 면목동)

## — 함께 갑시다 ! —

### 신명나는 한마당, '93 여름 수련회가 열립니다!

작년 여름, 모닥불 앞에서 함께 했던 그 뜨거운 시간을 기억하고 계세요?

올해도 모처럼만에 반가운 얼굴들이 총집합해 홍겹고도 진지한 한마당 잔치를 가지려합니다.

꼬박꼬박 참석했던 회원은 물론이고, 처음이라 어색한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고 계신 회원도 모두모두 대환영합니다.

알찬 프로그램과 홍겨운 한마당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93년의 마지막 여름을 정말 보람되게 보내고 싶으신 분은 지금 곧 사무실로 신청해 주세요!

“혼자라도 좋고, 들이라도 좋고, 가족동반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양심수후원회의 단결의 극치! ‘여름수련회’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8월28일(토) ~ 29일(일) <1박2일>

장소: 대성리 남사당

언제, 어디서 만나요? : 8월28일(토) 오후3시 청량리(기차)역 인구탑앞에서

회비는 얼마예요? : 10,000원

준미물은요? : 세면도구, 필기도구, 긴팔옷, 손전등, 모자, 우천시 우산

그리고 기대에 부푼 넓은 (?) 가슴 ~

(식사준비는 안해오셔도 돼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사무실로 문의해주세요! TEL 765-5282/763-2606)

## - 7월에 구속된 양심수 -

1. 고대성 (양심선언 군인)
2. 조정희 (양심선언 군인)
3. 이동익 (양심선언 군인)
4. 박석진 (양심선언 전경)
5. 임성호 (양심선언 전경)
6. 이재원 (양심선언 전경)
7. 이종수 (양심선언 전경)
8. 강태중 (양심선언 전경)
9. 김한주 (대림자동차) : 해고자 복직투쟁
10. 김의태 (대림자동차) : 해고자 복직투쟁
11. 최재우 (대림자동차) : 해고자 복직투쟁
12. 노태훈 (전 양심수후원회 간사) : 국보법
13. 최영국 (강원대) : 시위주도
14. 이종문 (외국어대 용인) : 병역법
15. 이인안 (전주경상대) : 집시법
16. 김경순 (연세대졸) : 자민통 사건
17. 천석복 (현대중공업) : 유인물 배포
18. 박찬우 (충북대졸) : 시위주도
19. 최종국 (충북대졸) : 시위주도
20. 하연호 (완주군 농민회) : 쌀투쟁관련
21. 고진법 (노동운동가) : 사노맹 사건
22. 유창민 (외국어대) : 국보법
23. 김영미 (단국대) : 국보법

## - 종합 검진을 받으세요! -

양심수후원회 제5차 총회에서 특별사업으로 채택된 출소장기수 선생님들의  
종합건강진단이 인.의. 협조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출소장기수 선생님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종합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대상 : 출소 장기수
  - \* 언제 : 1993. 8. 1 - 10.31 사이에 (본인이 원하는 때)
  - \* 검진항목 : 위내시경, 간검사, 혈압, 당뇨, 폐 각기관 초음파 검사, 기타
  - \* 준비하실 일 : 검사받기 전날 밤 10시 이후엔 어떤 음식도 잡수시지 말아야 합니다.
  - \* 어디서 : 가) 김지영 내과의원 <원장: 김지영> (전화) 717-5665  
; 신촌 전철역에서 이대역쪽으로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70미터 쯤에  
나) 사당의원 <원장: 김록호, (대)김종구> (전화) 599-5212  
; 4호선 총신대 역에서 총신대 쪽으로 150미터 거리  
다) 성수의원 <원장 : 양길승> (전화) 468-7908  
; 2호선 뚝섬역에서 경동국민학교 맞은편 경동빌딩 2층
- ☞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잡습니다〉

지난호(21호) 「출소장기수를 찾아서」 6쪽 위에서 16줄의 '부위원장'을  
‘소속원’으로 바로 잡습니다.

■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양심수 석방사업 적극지원
2. 경기북역 양심수 후원사업 (경기적 영치금 발송, 책자, 영치품 지원)
3. 시국사법 후원사업 (비정기적 영치금 발송)
4. 석방된 경기북역 양심수의 생계지원 생계터전 마련사업  
(구로동 '민남의 집' 운영)
5. 경기북역 양심수, 석방자 중 무의탁자와 자매결연 추진

○ 이용하실 승급구좌 ○

제일은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서울신탁은행 15701-89000531 (양심수후원회)  
국민은행 006-01-0601-098 (양심수후원회)  
농협 053-01-112692 (양심수후원회)



받는이:

# 한국소식

보내는이: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110-542)